들뢰즈의 주름 사유와 바로크를 중심으로 본 바로크의 복식미

성 광 속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The Aesthetic of Baroque Costume Focused on the Gilles Deleuze's 'Le Pli' and Baroque

Kwang sook Sung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ng University

(received date: 2015. 8. 24, revised date: 2015. 9. 16, accepted date: 2015. 11. 17)

ABSTRACT

Gilles Deleuze highly evaluated Baroque as the expression body that implements the fold theory, a philosophical thinking about the nature of beings. This can be seen as a meaning that Baroque implements the essence of the world, or the power constituting that essence. In addition, the beauty of Baroque focuses on 'New Harmony' the sum of partial forms caused by each element, and not Platonic harmony. he evaluated the aesthetic of Baroque costume as 'acquisition of liberation and autonomy', 'derived force from infinite spiritual forces'.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Aesthetic of Baroque costume based on the reviewed Deleuze's folding theory, Baroque aesthetics, and views of Baroque costume. As a result, it inferred the aesthetic of Baroque costume into four types, which are as follows: open structural openness, overlapping structural dynamics, integrated structural diversity, and relationship structural integrity. This study analyzed the aesthetic of Baroque costume based on Deleuze's philosophical thinking. The analysis showed that its aesthetics, which focused on "New Harmony", created energy of life and a venue for expression of power, as the aesthetics eliminated the prejudice of complexity and excessive decoration. In addition, Baroque costume is not the simple historical costume of the past. Instead, it is one of power and spirit, still existing in modern fashion. Baroque costume's formativeness and Paradigm can be said to provide the creative principle important for modern fashion because the aesthetics implemented in Baroque costume accepts free spirit, new challenge, difference and diversity, and is similar to the spirit pursued by modern art and fashion.

Key words: the aesthetic of costume(복식미), Baroque(바로크), Gilles Deleuze(질 들뢰즈), 'Le Pli'(fold, 주름)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Gombrich(2013)는 “바로크라는 말은 17세기 예술 경향에 대해 반감을 가졌던 후대의 비평가들이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한 말로, 터무니없다 라든가, 기괴하다는 의미로,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채택한 방법 이외의 다른 식으로 고전건축의 형식을 차용하거나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였다. 이러한 비평가들에게는 고대건축의 엄격한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통탄할만한 취향의 타락으로 보였기에 이 양식을 바로크라고 불렀다”라고 논평하고(pp. 293-294), 사실상 순수한 고전적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바로크 건축가들에게 퍼부었던 비난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곡선과 소용돌이 무늬 때문이었다(Gombrich, 2013, p. 296)고 밝히고 있다. Wölfflin(2004)은 “바로크도 동일한 형태의 체계를 사용하지만 그것으로 완벽함이나 완결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운동감과 생동감을, 즉 규정된 틀 안에서 의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무한하게 확장하는 모습을 띤다. 아름다운 비례라는 이상은 퇴색하였으며, 존재가 아닌 생성에 흥미를 두게 되었다. 형체는 움직이고 무거우며 무디게 짜여졌고, 르네상스 시기에 정점에 달했던 건축은 부분 결합의 예술이기를 포기하였다. 과거에 극도의 독립적 인상을 추구하던 전체 구성은 독립성을 결여한 부분들의 융합으로 대체되었다”고 하였다(pp. 13-17). 바로크 복식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저서로는 Go(2008)는 “르네상스 복식에서 추구되었던 조화와 균형에 의한 아름다움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동적이고 부조화된 의복 장식이 두드러진다”고 했다(p. 190). Jung(1999)은 르네상스 복식이 항상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았던 것에 비해 바로크 복식에서는 각 부분의 장식들이 전체적인 조화의 효과와 관계없이 다만 장식 그 자체를 나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미적 원리나 가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호화로움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치장에 열중하게 되는 천박한 양상이 초래되었다고 비판하였다(p. 203). 선행 연구된 논문을 보

면, Choi & Kim(1994)은 바로크 복식의 미적 범주를 우아, 우미, 숭고, 골계, 추로 범주화하였고(p. 207), Shin(2008)은 바로크 복식에 표현된 시대적 이상미를 부조화성, 권위성으로(p. 145), Jang(2007)은 빌폴린의 양식비교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바로크 복식미를 회화적인 것, 깊이감, 개방적인 것, 단일적 통일성, 불명료성으로 구분하였다(p. 27).

이상으로 볼 때 바로크 복식미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Deleuze(2004)는 말년의 저서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에서 빌폴린이 언급한 “바로크 예술의 가장 강렬한 효과 중 하나는 파사드의 격앙된 언어와 내부의 차분한 평화 사이의 대조이다. 그러나 내부 장식의 과잉이 결국에는 그 대조를 흐리게 한다” 그리고 장 루세가 말한 “바로크를 파사드와 내부의 분리를 통해 정의하지만, 그 역시 장식이 내부를 폭발하도록 만들 위험이 있다”는 그들의 견해를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였다. 들뢰즈는 신플라톤주의적인 전통의 계단으로 된 우주, 그러나 두 층만으로 되어 있는 세계, 그리고 상이한 체제를 따르는 두 측면으로부터 반향되는 주름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세계,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바로크의 공헌이며, 이것은 우주가 세상으로 변형됨을 표현한다고(p. 58) 바로크를 재평가하고 그리스는 주름의 물질적 합성체들이 형상적 요소 또는 표현 형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면서 그리스의 주름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Deleuze, 2004). 뿐만 아니라 바로크의 예술 전반, 즉 건축, 회화, 조각, 음악, 그리고 복식에 이르기까지 바로크의 미적특성에 대해 라이프니츠의 주름 사유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 해석하며 바로크 미학을 무한하게 나가는 주름으로 정의하고, 바로크를 르네상스와의 단절, 필연적으로 조화롭고, 새로운 조화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본고는 현대 후기 구조주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질 들뢰즈의 철학적 사유인 주름 사유와 그의 사유의 발현체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바로크 미학과 바로크 복식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바로크 복식을 재조명하여 바로크 복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재고해 보고자한다. 현대에 와서 바로크는 그 예술 정신

이 새롭게 재평가되며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바로크가 가지고 있던 예술 정신과 그로 인해 표출된 특성들이 지금의 현상과 비슷하기 때문이며 바로크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Kim, 1986). 도르스는 바로크를 일컬어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인간성의 본질적인 향수로 파악한다고 하며, 고전적 의식이라는 고급스러운 정신 상태가 약화되면 자아 안에 들어있는 무수한 많은 것들이 제약 없이 밖으로 분출되는데 이것을 바로크적 자아로 규정한 바 있다(Lim, 2011). 바로크가 기존의 전통과 중시되던 규칙에서 벗어나 기존 질서에 항거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며 추구하는 자유로운 예술 정신에 기인하며, 이렇게 볼 때 바로크적 자아는 현대적 자아와도 무척 닮아있다. 따라서 바로크 복식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 복식이 아니며 현대 패션에 살아있는 정신이기에 들뢰즈의 철학과 바로크 미학을 중심으로 바로크 복식을 재조망하는 것은 현대 패션의 폭넓은 이해와 창작을 위해서 필요하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먼저 들뢰즈의 바로크 미학이 집약된 저서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를 중심으로 관련 서적과 연구를 통해 그의 주름 사유와 바로크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들뢰즈의 바로크 미학을 중심으로 바로크 건축의 특성을 논의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론적 배경이 되는 바로크 복식에 대해서는 본론의 논의와 중복될 뿐 아니라 한정된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바로크 시기인 17세기의 전반부는 르네상스 스타일과 네덜란드의 시민복장이 교체된 시기이며, 바로크풍의 취향은 루이 14세가 왕위로 즉위한 중엽부터 성행하였으며(Jung, 1999), 17세기 중엽에 가면 바로크라는 양식이 완전히 발전하게 된다(Gombrich, 2013). 따라서 편의상 정홍숙(Jung, 1999)의 시기 구분처럼 바로크 시기를 4분기로 나누어볼 때, 1/4분기는 르네상스 영향이 강한 초기 복식임으로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복식사 서적과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총 82점이며, 자료 선정이 편

중되지 않도록, 2/4, 3/4, 4/4 분기별로 남녀 복식을 고루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고찰된 들뢰즈의 주름사유와 바로크 미학, 그리고 바로크 복식에 대한 견해 등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추된 바로크의 복식미를 사진 자료로 제시하여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와 주름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원자론을 비판하고,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단순한 요소, 즉 자연의 참된 아톰은 불가분(不可分)하며 공간적 확산을 가지지 않는 '단순자'이고, '형이상학적 점'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궁극적인 실체를 모나드(monad)라고 불렀다(Monard, n. d.). 그는 물체, 신체는 결코 모래알의 분절처럼 작은 점이나 무한소로 와해될 수 없으며 크고 작은 무한의 '주름(Le Pli)'들이 존재하는 접혀있는 종이나 막처럼 연속체의 분절로서 이해되어야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존재는 그 안에 무한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으며, 이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주름이라 부를 수 있다. 주름은 접힘의 개념을 포함하는데 접힌 면은 두 개지만 전체를 보면 하나이듯이 접힘이란 이렇게 연속과 불연속의 계기를 동시에 포함하는 구조이다. 접혀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과정, 펼침 즉 '표현'되는 것이 반복을 통해 현실화, 실재화되는 결과이며, 존재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Sahakian, 1991). 그러나 모나드의 잠재된 속성이 실재화되는 과정인 주름 운동은 라이프니츠에 있어서는 신에 의해 예정된 운명(예정조화설)이었으며, 따라서 무한한 창조적 생명으로서의 완전한 표현(표상) 구도를 갖추지 못하였다.

2. 들뢰즈의 주름과 바로크

들뢰즈는 라이프니츠의 주름 개념을 계승하면서 예정조화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조화' 체계를 주장하였다(Lim, 2009). 즉 바로크 하우스의 알레고리를 통해 자신의 주름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하였으

며, 주름의 창조적 생성이며 표현을 바로크로 보고, '새로운 조화'로서의 바로크의 특질을 다음의 6가지로 구분해 설명하였다.

1) 주름

Deleuze(2004)는 '주름' 사유("Le Pli" fold)와 바로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로크는 끊임없이 주름을 만들며, 주름을 구부리고 또 다시 구부리며 이것을 무한히 밀고나가 주름 위에 주름을, 주름을 따라 주름을 만든다. 바로크는 무한한 작업 또는 작동을 발명한다.... 바로크의 주름은 더 나가 형상을 결정하고, 나타나게 하며, 이것을 형상, 계슈탈트, 발생적 요소 또는 변곡(變曲)의 무한한 선, 유일한 변수를 가진 곡선으로 만든다(p. 11, p. 28).

세계를 구성단위는 점이 아니라 주름이며, 이 주름은 무한하고 분리 불가능하다. 세계는 주름으로 비어있음 없이 꽉차있으며, 매우 밀도 높은 무수히 많은 주름이 접힌 장이요, 연속체이다. 바로크는 이러한 세계를 구성하는 주름을 무한히 만들며, 바로크의 주름은 무한 작동하는 표현 물질이 되어 형상을 구축한다. 이는 곧 바로크 예술이 세계의 본질, 혹은 본질을 구성하는 힘을 구현해 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 내부와 외부

Deleuze(2004)의 '내부와 외부'에 대한 설명이다:

주름은 물질과 영혼, 외부의 파사드와 내부의 닫힌 방을 분리시키거나 그 사이를 통과한다. 즉 변곡의 선은 끊임없이 스스로 분화하는 하나의 잠재성이다. 이것은 양측면 각각에서 영혼 안에서 현실화되고, 물질 안에서 실재화된다. 이것이 바로크의 특질이다. 외부는 내부로 내부는 외부로, 수용의 외부, 파사드와 작용의 내부의 방은 무한한 수용성과 무한한 자발성을 가지며, 필연적으로 조화롭고 새로운 조화의 영감을 불러일으킨다(p. 28).

여기서 들뢰즈의 잠재성은 가능성과는 다른 것으로, 무수히 많은 실체들이 내적 복수성의 상태로 접혀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잠재성은 특정한 모습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실체이다. 그러

므로 잠재성에서 현실화되는 것은 창조적 생성이며 표현이 된다. 영혼과 물질이 서로 소통하며 상호 무한 수용성과 자발성을 가지며, 내외부의 두 세계는 접고 펼치는 잠재성의 현실화, 실재화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 바로크 예술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조화롭고, 새로운 조화의 영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3) 높은 곳과 낮은 곳

Deleuze(2004)의 '높은 곳과 낮은 곳'에 대한 견해이다:

분리의 완전한 일치, 또는 긴장의 해소는 두 층의 분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두 층은 단 하나의 같은 세계이다(우주의 선). 영혼과 물질, 위층과 아래층,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대립된 두 세계는 주름에 의해서 공존하고 소통되는 하나의 세계이며, 분리되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관계들 어느 쪽도 배제하지 않으며, 이것들의 조화가 함께한다. 두 층은 각각 물질의 겹주름(pleats of matter)과 영혼안의 주름(fold of soul)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바로크는 무한히 두층을 가진 듯, 두 방향을 따라, 두 무한을 따라 주름을 분화시킨다. 무한히 주름지어 나가는 것이 바로크의 특질이다. 바로크는 대표적인 앵포르멜(Informalism) 예술이다(pp. 69-70).

라이프니츠에게 사물은 단순히 모나드들의 집합물이나 수집물이며 모나드들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이해되어진 반면, 들뢰즈는 독립성을 갖는 모나드들의 내부와 외부가 서로 침투하고 각각이 상호관계를 맺게 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모나드(실체)와 사물(양태), 높은곳(정신)과 낮은곳(물질), 영혼의 주름과 물질의 겹주름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 복합물의 상층과 하층 두 세계는 오직 주름 구조로 서로 접어져 있을 뿐 이다(Lim, 2009).

4) 펼침

Deleuze(2004)는 '펼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펼침은 접힘의 반대나 소멸이 아니라 접힘 작용의 연속 또는 확장, 접힘이 현시되는 조건이다. 접힘이 재현되기를 멈추고 '방법' 작동, 작용이 되면, 펼침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작용의 결과가 된다. 동양의 선은 상호적인 생성 안의 충만과 공

허처럼 분배된다. 그러나 바로크는 공허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도록 같은 지역 안에서 연속적으로 접는다. 그리하여 겹주름 잡힌 물질로 가득하며 외형적인 공허 안에 감춰둔 주름들을 꺼내어 중첩시킴으로 언제나 충만하다(pp. 71-72).

각 사물들, 존재들의 차이는 그들이 잠재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주름을 내포하고 있느냐, 즉 접고 있느냐는 것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그 잠재적인 특이점들, 주름들을 얼마나 현실화하고 있느냐, 즉 펼치느냐를 뜻한다. 들뢰즈에게 세계는 오직 개체의 내재적인 힘에 의해 연속적인 창조과정으로 접힘-펼침-다시 접힘의 지속적인 주름 운동(표현)으로 이루어지며 그 경계는 무한히 열려있는 개방성으로 존재한다. 바로크는 중첩된 주름들로 가득하며 끊임없이 주름을 꺼내어 펼쳐내는 운동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5) 텍스처들

다음은 Deleuze(2004)의 '텍스처들'에 대한 견해이다:

바로크의 모든 텍스처는 보다 상승된 지점, 즉 형상을 포괄하고, 형상을 포괄된 것으로 보존하고, 아래의 물질적 주름들의 비밀만을 간직하는 정신적인 점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다. 바로크의 텍스처도 역시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물질의 파생적인 힘들은 영혼의 힘들인 원초적 힘들을 지시한다. 언제나 두 개의 층들이 조화되며, 조화 작용을 이룬다(p. 36).

라이프니츠는 한 사물 안에 내재해 있고 그 사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에너르기인 힘을 본래적, 파생적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능동적, 수동적 힘으로 구분하였다. 본래적 힘은 한 실체 자체 내의 힘이며, 파생적인 힘은 실체가 다른 실체들과 관계 맺고 운동할 때 그 계에서 파악된 현상적인 힘이다. 본래적-파생적 쌍은 형이상학적 힘과 자연철학 사이의 구분이며, 능동적 - 수동적 쌍은 형상의 힘과 질료의 힘 사이의 구분이다.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여러 힘들을 나눔으로써, 형이상학과 자연철학, 형상과 질료를 모두 인정하는 포괄적인 사유를 펼친다(Lee, 2000). 그러나 그의 주름 개념은 영혼에서 사물로, 본래적인 힘에서 파생적인 힘으로, 잠재성에서 실제화에 이르

는 신에 의해 예정된 구조를 갖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들뢰즈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이러한 위계가 상호작용으로 변화되어 상호 분화되고, 침투하고 통과, 공존, 소통하는 새로운 존재방식으로 '새로운 조화' 체계를 주장하였다. 이는 바로 바로크의 접히는 방식이기도하다.

6) 패러다임

끝으로 Deleuze(2004)는 '패러다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름의 합성체들(텍스처)이 형상적 요소 또는 표현의 형식을 은폐해서는 안된다. 그리스의 주름은 형상들은 주름 잡혀 있지만, 주름의 형상적 요소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엮어 짜는 것인 직조의 플라톤적인 패러다임(paradigm)은 텍스처에 머물러 있으며 주름의 형상적인 요소를 끌어내지 않는다. 그러나 무한과 더불어, 통약불가능한 것과 척도에서 벗어난 것 안에서, 가변적 곡률이 원의 왕위(王位)를 대체할 때에만 형상적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바로크의 상황이며, 더불어 사유 역량과 정치 권력에 상응하는 바로크 주름의 위상이다. 바로크의 패러다임은 형상적 영역에 도달하며, 직조가 아니라 압축에 의한 펠트(felt)인 집적체, 또는 응집체의 패러다임이다(pp. 74-75).

패러다임은 앞서 서술된 주름, 내부와 외부, 높은 곳과 낮은 곳, 펼침, 텍스처 등의 바로크의 특징이 추구하는 체계, 틀, 양태로 볼 수 있다. 들뢰즈는 가타리와 공저한 <천개의 고원>에서 이 패러다임에 대해 언급하였는바, 플라톤이 '왕립과학', 즉 사람을 통치하고 국가 장치를 운용하기 위한 기술 패러다임으로 직조술을 모델로 삼은 것은 길이는 무한하더라도 날실의 틀에 의해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제한되고 닫힌 공간의 성격 때문일 것이라 해석하였다(Deleuze & Gattari, 2001). 그리하여 그리스는 주름의 형상은 있으나 직조의 패러다임으로 형상적 요소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이에 비해 바로크를 펠트의 패러다임으로 비유하면서, 개방되고 열린 공간의 성격으로 형상적 요소가 나타나는 바로크 주름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상으로 들뢰즈의 바로크 하우스의 알레고리를 통해 그의 주름 사유와 바로크 미학을 고찰하였으며,

〈Table 1〉 The mean term of characteristics of Deleuze's Baroque

Baroque house	The mean term of characteristics of Deleuze's Baroque
1. Fold	openness, overlapping, continuity, infinity, diversity, endless working, power, Gestalt
2. Inside & outside	potential, acceptance, spontaneity, repetition, contrast, creative generation, new harmony, realization, actualization
3. High place & low place	match of separation, differentiation, interrelation, coexistence, communication, integration, Informel
4. Spread	continuity, expansion, generation, overlapping, filling
5. Texture	differentiation, movement, dynamism, mutual co-existence, communication, new harmony
6. Paradigm	open, open space, figurative deduction, aggregate, condensate

바로크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들을 추출하여 〈Table 1〉로 정리하였다.

Ⅲ. 바로크 복식미

바로크의 복식미를 도출하기 위해 〈Table 1〉에서 제시한 데리외즈의 주름 사유와 바로크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데리외즈의 바로크 미학을 중심으로 바로크 건축의 특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바로크적 특성 개념들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Han(2009)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을 중심으로 바로크 건축 공간의 특성을 중첩성, 통일성, 운동성에 의한 비선형으로 유형화 하였고, Han(2012)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을 중심으로 바로크 건축의 심연성의 유형을 비선형, 중첩, 통일감, 움직임으로 범주화하였다. Lee & Chon(2008)은 데리외즈의 주름론을 중심으로 바로크 건축의 특성을 불확정성과 다양성, 이중적 대립에 의한 차이 강조, 이질적 요소들의 융합, 위상기하학적 특성, 역동성과 유동성, 통일성으로 유추하였다(p.25). 이상의 관련 건축 연구를 통해 비선형적, 중첩, 통일감, 움직임, 불확정성, 다양성, 차이, 혼성, 융합, 위상기하학, 역동성, 유동성, 통일성 등의 바로크적 건축특성의 개념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개념들과 〈Table 1〉에서 제시한 개념들을 모아 동위(同位)적 개념들끼리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바로크 복식의 미적 특성을 유추하였다. 첫째 그룹은 개방, 해방, 자율성, 수용성, 자발성 등으로 부터 개방성을, 둘째 그룹은 힘, 생성,

분화, 운동, 역동, 유동, 움직임, 무한 상승 등으로 부터 역동성을, 셋째 그룹은 다양성, 대조, 차이, 변곡, 분화, 혼성, 위상학 등으로 부터 다양성을, 넷째 그룹은 분리의 일치, 통합, 통일 등으로부터 통합성을 범주화하였다. 이어서 4가지 각각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 할 수 있는 개념을 찾고자 분류된 4가지 특성에 따라 수집된 바로크 복식 자료를 4그룹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자료들을 내용분석하여, 내용을 적합하게 구체화 할 수 있는 개념들을 2차적으로 분류하여 4가지 특성에 각각 대응시켰다. 개방성은 열린 공간, 앵포르멜, 무한, 확장, 비선형적, 불확정성 등의 개념으로부터 열린 구조를 유추하여 열린 구조적 개방성으로 명명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역동성은 중첩, 연속, 반복 등의 개념으로부터 중첩 구조적 역동성으로 명명하고, 다양성은 집적체, 응집체, 층만, 융합 등의 개념으로부터 집적 구조적 다양성으로, 통합성은 상호관계, 상호공존, 계슈탈트, 소통 등의 개념으로부터 관계 구조적 통합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로서 바로크의 복식미를 열린 구조적 개방성, 중첩 구조적 역동성, 집적 구조적 다양성, 관계 구조적 통합성 등 4가지로 유추한 바, 이 과정을 〈Table 2〉를 통해 요약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린 구조적 개방성

Deleuze(2004)는 바로크 복식의 주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바로크의 특질은 무한히 나아가는 주름이다. 바로

〈Table 2〉 Inferred Baroque the aesthetic of costume from The mean term of characteristics of Deleuze's Baroque

mean term of isotopy of characteristics of Deleuze's Baroque	Inferred Baroque the aesthetic of costume		mean term of isotopy of characteristics of Deleuze's Baroque
open space, expansion, infinity, endless working, nonlinear, indeterminacy, Informel	▶ Open structural	openness	◀ openness, acceptance, autonomy, spontaneity, liberation,
overlapping, continuity, repetition	▶ Overlapping structural	dynamics	◀ dynamism, power, generation, flowage movement, activity
aggregate, condensate, filling, fusion,	▶ Aggregated structural	diversity	◀ diversity, variation, distinction, contrast, differentiation, Hybrid, topology
interrelation, coexistence, communication, Gestalt,	▶ Relationship structural	integrity	◀ integration, match of separation unity

크가 무한하게 나가는 주름에 의해 정의된다면, 주름은 먼저 가장 간단하게 직물, 옷을 통해 식별된다. 직물, 옷은 유한한 신체에 묶여있는 관습적인 종속으로부터 자기 고유의 주름을 해방시켜야 한다. 만일 바로크의 고유 의상이 있다면 그것은 크고, 부풀어 올라 헐렁하고, 거품이 일고, 페티코트를 대서 블록할 것이다. 또한 신체의 주름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율적이고 항상 증식 가능한 자기만의 주름들로 신체를 둘러싼다. 랭그라브(rhingraves) - 장식들, 또 푸르푸엥(pourpoint), 헐렁헐렁해서 흔들리는 망토, 큼지막한 라바(rabat), 넘쳐 흐르는 셔츠 등과 같은 체계가 17세기 가장 전형적인 바로크의 공헌이다(p. 220).

이는 바로크 복식이 유한한 신체에 묶여있는 관습적인 종속으로부터 자기 고유의 주름을 해방시키고, 신체의 주름을 표현하기 보다는 자율적이고 항상 증식 가능한 자기만의 주름들로 신체를 둘러싸움으로, 신체에 구속되지 않은 불확정, 비정형, 비규격, 비제한의 의미인 열린 구조를 갖는 바로크 복식의 구조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조화와 황금 비례의 엄격한 이상미를 추구하는 직조적 패러임의 폐쇄적이고 종속적인 르네상스 고전미학에서 이탈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하는 정신적 힘이 발휘되는 것을 '열린 구조적 개방성'으로 유추하였다. 특히 들뢰즈는 바로크적 특성이 가장 강력하게 표출되는 남성복인 랭그라브와 장식들, 푸르푸엥, 헐렁헐렁해서 흔들리

는 망토, 큼지막한 라바, 넘쳐 흐르는 셔츠 〈Fig. 1〉 등을 바로크의 공헌이라 높이 평가하며, 여기에서 그의 주름 사유가 강력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부조화와 장식과잉, 추의 미 등으로 폄하된 기존의 연구와 복식사 관련 서적의 많은 평가들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Fig. 1〉은 루프(roope)와 레이스, 러플(ruffle) 등의 장식이 동시대의 여성복보다 훨씬 화려하여 남녀 성의 구분이 와해된 복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반대로 여성복에 있어 남성적 요소 차용 현상으로 나타난다. 〈Fig. 2-3〉처럼 남성의 더블릿과 유사한 스타일을 착용하거나 남성용 카발리에(cavalier) 모자를 쓰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유행 현상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짧은 머리란 어깨정도까지로 남성의 머리길이 정도이며 이전 시대의 긴 머리 일색이 아니라는 상대적 의미이다.

1650년대 이후 길게 늘어뜨린 남성 머리카락 1670년대 이후의 거대하게 웨이브진 긴 가발 스타일도 성의 구분이 와해되어 남녀에 대한 고정 관념이 무너지는 열린 구조적 개방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유로움에 대한 욕구로 인해 여성의 모래시계형 인체나 남성의 역삼각형 몸매의 추구에서 벗어나 남녀 복식에서 르네상스의 딱딱하고 정형화된 구조적 형태로

부터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흐름이 있는 비정형적 실루엣으로 변화되는 열린 구조가 지향되었다 <Fig. 2-5>. 그 밖에도 남성복인 더블릿을 닮은 짧은 바디스와 콜렛과 파팅게일이 없는 스커트를 착용하고 <Fig. 2-3>처럼 소매는 팔꿈치에서 묶어 두 개의 퍼프를 만들어(Payne, B. 1988), 고정형 소매가 아니라 소매를 묶어줌으로 가변적 형태를 만든 것,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커프스가 겹겹이 층을 이루고, 허리띠 장식을 제 허리가 아닌 약간 하이웨스트로 묶은 것, 가운데가 개방되어 뒤로 젖히거나 뒷 중심에서 묶기도 하며, 혹은 버슬 형으로 끌어 올리는 오버드레스 등, 고정 관념에서 이탈한 다양한 디자인들에서 열린 구조에 의한 개방성이 추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들뢰즈는 바로크 건축의 외부와 내부가 상호 소통하며 외부와 내부는 상호 무한한 수용성과 자발성을 가지며 새로운 조화를 이룬다고 말한바 있는데 이를 복식에 적용해보면 아우터(outer)와 이너(inner)웨어 사이의 상호 소통과 상호간의 수용, 더 나아가 자발성을 지니는 새로운 구조, 즉 열린 구조를 지향하는 개방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슈미즈 같은 이너웨어는 아우터에 가려져 겉에서는 목과 소매 끝

등의 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나 바로크 복식에서는 <Fig. 1>처럼 속에 입는 이너웨어인 슈미즈는 셔츠로서 적극 노출될 뿐 만 아니라 더블릿이 축소됨으로 인해 겉옷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목되는 자발성을 띄며, 겉옷과 대등하게 수용되는 형태로 표현된다.

여성복에서도 슈미즈의 소매 끝에 러플, 레이스를 달아 적극 노출 시킴으로 인해 오히려 로브의 소매가 짧아 지는 경우도 많다<Fig. 6-7, 9>. 또한 바로크 시기에는 언더스커트의 독특한 노출 방식이 두드러지는데 <Fig. 6-7>의 오버드레스는 언더 스커트를 적극 노출하기 위해 뒤로 젖혀지는 형태가 되며 이로써 언더스커트는 더 이상 스커트에 종속된 언더 스커트가 아닌, 주목되는 자발성을 지니며 오버스커트와 대등한 중요성을 지니면서 양측이 상호 수용되어 새로운 조화를 창출하고 있다.

2. 중첩 구조적 역동성

들뢰즈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안에는 또 다른 세계가 복수로 중첩되어 있는 주름들로 이루어진 연속체이며, 바로크는 이러한 세계를 구성하는 주름을 무한히 만들며, 이 주름은 무한 작동하는 표현 물질

<Fig. 1> Nobility of France, (1760s)
(Jung, 1999, p. 229)

<Fig. 2> Queen of England, Henrietta Maria, (1633)
(Payne, 1988, p. 421)

<Fig. 3> Prince of Spain, Matilda Cybill, (1630s)
(Black & Garland 1977, p. 236)

<Fig. 4> Earl of Holland, Henry Rich, (1640)
(Go, 2008, p. 203)

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곧 바로크 예술, 바로크의 복식이 세계의 본질, 혹은 본질을 구성하는 힘을 구현해 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식의 주름들로 형성된 ‘중첩 구조의 역동성’이 본질을 구성하는 힘을 구현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벨플린이 르네상스 예술이 평면적인데 반해 바로크 예술은 깊이감이 구사되어 있다고 비교한 바 있는데, 바로크 복식의 중첩 구조는 바로 복식에 깊이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중첩이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짐(*jung cuub, n.d.*)’을 의미하는데 들뢰즈는 바로크 복식에서 연속적 주름의 중첩이 무한히 작동되며, 세계를 구성하는 힘을 구현한다고 보았다.

“랭그라브 -장식들, 또 푸르푸앵, 헐렁헐렁해서 흔들리는 망토, 큼지막한 라바, 넘쳐 흐르는 셔츠 등의 체계가 전형적인 바로크” 라고 하며, <Fig. 1>은 들뢰즈가 주름의 중첩구조와 그 역동적인 힘에 대해 대표적으로 예를 든 복식이다. 이 복식은 그의 지적대로 많은 주름과 역동적인 힘이 표출되고 있는데, 허리와 바지 양옆의 수많은 루프다발은 1656년경 유행을 따르는 사람에게 500-600개의 루프 리본을 달았다고 한다 (Boehn, 2000).

그리고 셔츠 소매와 푸르푸앵 소매단의 주름들, 랭그라브의 주름들, 캐논(canon) 장식의 주름 등, 다

양한 주름이 만들어내는 역동성, 그리고 이것을 착용하고 움직일 때 마다 흔들리며 자발적 운동성 등으로 인해 중첩된 주름들이 무한 작동의 표현물질이 되는 것이다. 즉 파상, 굴곡, 복잡, 화려, 무제한으로 표현되는 바로크 스타일은 모든 것이 거대한 규모로 행해지고, 이전 시대보다 더 크고 더 현란하며, 관능적인 굴곡을 이룬다. 미술과 건축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식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Payne, 1988) 바로크 복식은 이처럼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에서 분출하는 자유분방함이 착용시 동적이며, 율동감을 나타내는 굽이치는 수많은 곡선에 의한 예술적 표현이 추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자료에서 관찰되는 바, 예를 들면 <Fig. 6>은 뒤로 젖혀 고정시킨 오버 스커트의 다이내믹한 굴곡이 뒤로 길게 늘어뜨린 트레인(train)으로 인해 드라마틱하고 깊이감 있는 굴곡들이 중첩되면서 강렬하게 움직이듯 흘러 내려 운동하는 역동성이 느껴진다. 소매의 주름과 루프다발 장식의 주름,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웨이브까지 머리끝에서 부터 스커트 트레인의 끝까지 연속되는 굴곡들이 중첩되면서 움직이는 듯한 역동감을 준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Fig. 7>은 페티코트가 겹겹이 중첩된 러플들이 연속되고, 오버 스커트의 앞단을 허리

<Fig. 5> Count of England, John & Bernard Stewart, (1638), (Wikimedia Commons, n.d.)

<Fig. 6> Dauphiness of France, (1670), (Payne, 1988, p. 429)

<Fig. 7> Comtesse of France, Douairière, (1690s), (Payne, 1988, p. 431)

<Fig. 8> Countess of Spain, del Infantado, (1655), (Payne, 1988, p. 423),

〈Fig. 9〉 Lady of Holland, (1660-65), (Payne, 1988, p. 426)

〈Fig. 10〉 King of England, Charles II, (1650s), (Wikipedia. n.d.)

〈Fig. 11〉 Prince of Spain, Gustav Adolph, (1655), (Go, 2008, p. 204)

〈Fig. 12〉 Nobility of France, (1670s) (Black & Garland, 1997, p. 226)

뒷 중심까지 과감하게 끌어올려서 앞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하여 버팀대 없이도 버슬(bustle)효과를 내었다(Payne, 1988). 거기에도 레이스 캡 위에 얹어 뺏뺏하게 철사심을 넣은 레이스 프릴로 이루어진 8인치 높이의 탑 모양의 풍탕주(fontange) 헤어스타일(Black & Garland, 1997)까지 다양하게 굴곡진 주름들의 중첩으로 가득하며 이 구조들이 착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며, 생동하는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Fig. 8〉은 소매와 스커트의 원형을 이루는 연속적 주름에서 반복, 리듬감, 연속성, 역동성이 드러나고 〈Fig. 9〉의 긴 스톰아커(stomacher)는 에셸(échelle)이라 불리는 많은 리본으로 덮혀 있으며(Payne, 1988) 소매단에도 노출된 슈미즈 자락의 겹겹이 층을 이루고 같은 장식이 달려있어 중첩 구조에 의한 역동성을 볼 수 있다.

3. 집적 구조적 다양성

집적 구조라함은 들뢰즈가 말한대로, 르네상스의 패러다임인 직조가 아닌 바로크적 패러다임인 펠트의 구조, 즉 집적체(集積體), 응집체(凝集體)적 구조를 말한다. 규정된 법칙에 따라 씨실을 배치하고 날실을 짜올리는 제한적 구조가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닥의 실들을 응축시 켜나가면서 천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 복잡성의 통합이며, 다양성의 통합이고, 규격화, 획일화가 아닌 무한 차이를 수용하고 상호조화 시키는 것이다. 즉 각각의 요소에서 기인한 부분적 형태들의 총합인 플라톤식의 조화가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전체구조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집적 구조적 다양성'으로 특성을 유추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바로크를 장식 과잉, 복잡함 등으로 평가하였으나 들뢰즈는 이러한 다양성의 수용과 통합을 바로크의 공헌으로 보고, 그의 주름 사유가 현실화되며, 실제화되는 예술의 장으로 평가하였다.

〈Fig. 1, 10-11〉은 복식 연구가들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스타일이나 들뢰즈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바로크 정신의 발현체로 높이 평가한 복식이다. 많은 루프와 레이스, 리본 장식들, 캐논 장식, 넘쳐나는 주름 장식들, 길게 웨이브져 늘어뜨린 헤어스타일까지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집적되어있다. 〈Fig. 11〉은 〈Fig. 1〉의 바로 이전 스타일로 앞여밈의 커다란 삼각형 리본다발, 양옆의 부피가 큰 장미장식 다발, 작고 모서리진 카라를 묶은 화려한 술 장식, 화려하게 수를 놓은 발드릭, 이것과 조화시킨 더블릿, 브리치

즈, 장갑 등의 완벽한 자수 장식, 여기에 널따란 플랑드르 레이스로 된 두 개의 러플이 장식된 부츠, 화려한 깃털과 보석의 밴드로 장식된 팔에 끼고 있는 모자(Payne, 1988) 등, 많은 요소들이 집적되어 있어 르네상스적인 비례와 조화의 고전미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분명 부조화요, 장식과잉이지만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정신적 힘들이 파생되어져 만들어 낸 집적구조적 다양체를 구축하였다.

4. 관계 구조적 통합성

전술한 바와 같이 집적체로서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이 하나 안에 응축되어 있으므로 인해, 장식 과잉과 복잡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바로크가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시각적 원리는 바로크 복식의 아이템이나 디자인 요소들 간에 시각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관계구조를 가진다는 점이다. 관계 구조는 통일성을 이룩하는데, 바로크 복식에서 일정한 형식과 질서를 갖는 통일성이 반복, 교차, 점이 등의 시각적 운동감을 부여하는 율동과 함께 근접, 반복, 연속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들뢰즈는 바로크의 특질을 논하면서 바로크가 그의 주름사유를 실현하며, 게슈탈트(*Gestalt law, n. d.*)¹⁾를 이루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Deleuze, 2004). 아울러 내부와 외부, 높은 곳과 낮은 곳, 접합과 펼침 등이 상호 단절된 것이 아니라 대조를 이루지만, 분화하고, 분리되나 일치하며, 서로 상호관계하며, 소통한다고 지적하였다. 바로크 양식은 공간을 형성하는 새로운 힘으로써 매우 다양한 분야로부터 전체를 통합하는 힘으로 나타난다(Hauser, 1999). 이렇게 볼 때 바로크 복식은 게슈탈트적인 근접, 율동, 연속 등의 형태 인지의 법칙

으로 인해 전체와 부분 간에 통합성을 가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들뢰즈가 설명한 건축의 외부와 내부는 복식의 아우터와 이너 웨어로, 건축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은 상의와 하의, 모자와 신발, 혹은 카라와 커프스, 풍탕주와 트레인 등으로 다양하게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Fig. 12>처럼 후기에 등장한 코트와 웨이스트 코트 (외부와 내부), 코트의 소매의 넓은 커프스와 플레어, 셔츠의 소매끝의 레이스 장식과 크라바트, 어깨의 발드릭과 허리에 감은 스카프 (높은 곳과 낮은 곳) 등이 서로 상호관계적인 구조로 형성되어 통합성을 지닌다. <Fig. 7>은 페티코트, 소매자락, 목선, 풍탕주의 층층으로 이뤄진 겹주름, 풍탕주에 뒤로 늘어뜨린 긴 천과 스커트 뒤에 길게 끌리는 트레인, 페티코트의 겹주름과 오버스커트 자락의 역동적인 드레이퍼리, 그리고 엉덩이 위쪽으로 끌어올린 버슬 형태의 부정형의 주름 등이 <Fig. 1>과 더불어 각각 외부와 내부, 그리고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관계구조를 가지며 유사한 요소가 연속되고, 주름들이 근접하거나 포개지거나, 연속, 교차하고, 주름의 크기와 깊이가 점점 커지거나 깊어지며(점이, 漸移), 때로는 상, 하, 후방으로 방향성을 가지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변화 속에 통일을 이루는 디자인이라 하겠다. 아울러 소매를 중간을 묶어주는 장미 장식끈과 허리를 묶는 끈이 동일 구조이며 <Fig. 3>, 스토크의 에셀 장식과 소매단의 장식이 역시 동일구조로 관계를 가지며 <Fig. 9> 흥미롭다. 이렇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구조로 관계를 맺어 통합성을 이루는 현상은 거의 대부분의 복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들뢰즈가 바로크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그의 철학적 사유인 주름론을 구현하는 발현체로 높이 평가한 것은 바로크가 세계의 본질, 혹은 본질을 구성하는 힘을 구현해 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그는 각각의 요소에서 기인한 부분적 형태들의 총합인 플라톤식의 조화가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전체 구조에 주목하는 바로크의 미를 '새로운 조화'로 보

1) 게슈탈트 이론은 형태주의적으로는 부분 혹은 요소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 부분들이 모여 이론 전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전체는 또한 부분에 의해 달라지게 됨으로, 전체와 부분의 전체성, 혹은 통합성을 강조한다. 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이 형태를 지각하는 법칙을 근접의 법칙, 율동의 법칙, 폐합의 법칙, 연속의 법칙 등이 있으며, 이는 시지각과 관계된 것이나 기억, 학습, 사고 등의 심리학뿐 아니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회화, 영화, 음악, 예술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론이다. (Gestalt, (n.d.), 네이버 실험심리학용어사전: 게슈탈트 법칙,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고, 바로크 복식에 대해 '해방과 자율성의 획득', '무한한 정신적 힘들로 부터의 파생적인 힘'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바로크의 복식미를 틀뢰즈의 주름 사유와 바로크 미학, 그리고 바로크 복식에 대한 견해, 아울러 틀뢰즈의 바로크 미학을 중심으로 바로크 건축의 특성을 논의한 선행 연구 등을 중심으로 수집된 바로크 복식 자료들을 내용 분석한 결과 바로크의 복식미를 열린 구조적 개방성, 중첩 구조적 역동성, 집적 구조적 다양성, 관계 구조적 통합성 등 4가지로 유추하였다.

첫째, 바로크 복식은 유한한 신체에 묶여있는 관습적인 종속으로부터 복식 자체 고유의 주름을 해방시키고, 신체의 주름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율적이고 항상 증식 가능한 복식 자체의 주름들로 신체를 둘러싼다. 아울러 남성복에 화려함과 장식성이 극대화되거나 여성적 요소들이 차용되며, 여성복에서도 남성적 요소들이 사용되어 남녀성의 특징을 상호 공유하는 열린 개념의 개방성을 갖는다. 또한 르네상스의 여성의 모래시계형 인체에서 벗어나 콜셋과 파팅게일이 없어지거나 허리선의 변화가 생기고, 역삼각형의 남성 인체형에 얽매이지 않고 험령하고 여유로운 복장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묶어서 연출하는 비고정형 소매, 짧은 소매 밖으로 넘쳐 나오는 슈미즈의 소매 자락들, 셔츠 보다 훨씬 짧은 더블릿 등, 정형화된 고정적인 닫힌 구조에서 벗어나 비정형, 비규격, 비제한 등의 열린 구조적 개방성들로 충만하다.

둘째, 틀뢰즈에 의하면 바로크 복식에서 연속적 주름의 중첩이 무한히 작동되며, 세계의 본질, 혹은 본질을 구성하는 힘을 구현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복식의 주름들로 형성된 연속적 중첩 구조는 우주의 본질을 구성하는 역동적인 힘을 구현한다. 특히 복식에 구현된 수많은 겹겹의 다양한 형태의 주름들과 루프 장식 다발, 에셀 장식, 겹겹의 층으로 러플 지는 소매, 층으로 러플 진 부츠의 입구, 풍당주의 겹구조 등 중첩구조들이 매우 많으며, 이들이 운동하며 생성하는 율동감을 자아내며 다이내믹한 중첩 구조적 역동성을 구현한다.

셋째, 틀뢰즈의 바로크적 패러다임은 르네상스의

패러다임인 직조가 아닌 펠트의 구조인 집적체, 응집체적 구조를 말하는데, 규정된 법칙에 따라 씨실을 배치하고 날실을 짜올리는 제한적 구조가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닥의 실들을 응축시켜 나가면서 천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다. 바로크 패러다임의 복식은 완전한 비례나 조화에 의해 복식의 구조가 일정한 질서 속에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디자인 요소와 극대화된 장식들, 심지어 반대의 성의 디자인 요소까지도 수용하는 무한 변곡의 집적 구조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넷째, 집적체로서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이 하나 안에 응축되어 있으므로 인해, 장식 과잉과 복잡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바로크가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시각적 원리는 바로크 복식의 아이টে이나 디자인 요소들 간에 시각적으로 서로 상호 관계를 맺는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다. 틀뢰즈가 바로크의 특성으로 지적인 계슈탈트는 바로크 복식에서 계슈탈트적인 근접, 유동, 연속 등의 형태 인지의 법칙으로 인해 전체와 부분 간에 통합성을 가진다. 바로크가 건축의 외부와 내부, 높은 곳과 낮은 곳, 접힘과 펼침 등이 상호 단절된 것이 아니라 대조를 이루며, 상호 소통되듯이 셔츠와 푸르루앵과 랭그라브, 코트와 웨이스트 코트, 풍당주와 트레인, 언더 스커트와 오버스커트, 모자와 신발, 오버드레스와 소매를 묶는 띠, 혹은 카라와 커프스 등, 화려한 자수 장식, 루프 다발, 러플과 레이스 장식들, 리본이나 장미장식 등의 장식 디테일 요소들이 복잡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디자인 요소들이 연속됨으로 인해 아이টে 간, 혹은 디테일 간에 상호 연결되는데, 계슈탈트적인 시지각적 인지로 인해, 아우터와 이너웨어, 혹은 상, 하, 후방 등에서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이 연결되는 관계 구조적 통합성을 이룩하고 있다.

한 시대의 시대정신, 미의식, 사상 등은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시대의 복식 형태를 결정하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틀뢰즈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바로크의 복식미를 분석한 결과, 바로크 복식에 대한 부조화, 복잡성이나 장식 과잉의 편견으로부터 르네상

스의 고전미학의 완벽성에 기인하는 정형화와 제한을 거부하며, 무한 차이를 수용하고 다양성을 상호조화시키는 '새로운 조화' 체계로서의 바로크 복식미를 회복하고, 바로크 복식은 무한 생성하는 삶의 에너지요 힘이 발현되는 표현의 장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바로크 복식에 구현된 복식미는 자유로운 정신, 새로운 도전,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여, 현대의 예술과 패션이 추구하는 정신과도 닮아있어, 바로크 복식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 복식이 아니며 현대 패션에 여전히 살아 작동되는 힘이고 정신으로, 바로크적 복식 조형과 패러다임이 현대 패션에 중요한 창조 원리를 제공해 준다 하겠다.

Reference

- Black, J. A. & Garland, M. (1997). *A history of fashion I*. (G. S. Yun,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Jajak academy.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Boehn, M. V. (2000). *Die Mode*. (J. W.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Hangil art.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Choi, S. H. & Kim, M. J. (1994). Study on aesthetic category of dr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 197-209.
- Deleuze, G. & Gattari, F. (2001).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J. I. Kim,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Saemulkyul.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Deleuze, G. (2004). *Le pli, leibniz et le baroque*. (C. Y.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Munhak kwa jisung. (Original work published 1988)
- Gestalt (n.d.). In *dictionary of experimental psychology terms online*.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1287&cid=41990&categoryId=41990>
- Gestalt laws (n.d.). In *Dooopia online*.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9132&cid=40942&categoryId=33048>
- Go, Y. L. (2008). *Western costume culture and history*. Seoul, Republic of Korea: Kyomunsa.
- Gombrich, E. H. (2013). *History of art*. (S.G. Peck & J. H.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Yekyung. (Original work published 1994)
- Han, M. S. (200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baroque in Architecture of Paolo Portoghesi.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8(6), 52-59.
- Han, M. S. (2012). A Study on Spatial Abyss Expressed in Baroque Architecture and Art - Focus on the Monade Theory of Gottfried Leibniz-.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1(1), 59-67.
- Hauser, A. (1999).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2*. Seoul, Republic of Korea: Changkak kwa beopyung.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Jang, S. E. (2007). A study on the clothing styles of Renaissance and Baroque focused on H. Wölfflin's method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2), 15-29.
- jung cuub [중첩] (n.d.). In *Korean dictionary online*. Retrieved from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346600>
- Jung, H. S. (1999). *History of western costume culture*. Seoul, Republic of Korea: Kyomunsa.
- Kim, H. (1986). *Study of geneva school*. Seoul, Republic of Korea: Munhak kwa jisung.
- Lee Y. M. & Chon, D. Y. (2008). The Features of the Baroque Architecture viewed through the "Le Pli" of Deleuz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7(6), 7-27.
- Lee, J. W. (2000). *Fold and unfold*. Seoul, Republic of Korea: Gurum.
- Lim, D. Y. (2009). *A Study on the 'Folding in architecture' based on the Gilles Deleuze's Philosophy of 'Simulacre/Ev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Lim, Y. B. (2011). *Baroque*. Seoul, Republic of Korea: Hangil art.
- monad. (n.d.). In *science of religion encyclopedia online*.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29193&cid=50766&categoryId=50794>
- Payne, B. (1988). *History of costume*. (J. N.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Kkachi. (Original work published 1965)
- Sahakian, W. S. (1991). *History of philosophy*. (S. H. Gun,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Munye chulpansa. (Original work published 1979)
- Shin, J. Y. (2008). Ideal beauty represented in dr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3), 131-148.
- Wikimedia Commons. (n.d.).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Lord_Bernard_Stewart
- Wikipedia, org. (n.d.).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Charles_II_of_England
- Wölfflin H. (2004). *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J. H. Park,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Cygongsa. (Original work published 1915).